



세계석유회의는 1933년 영국, 런던에서 1차 총회를 개최한 국제석유회의로 석유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최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비정치적 중립조직이다.

## 카타르 도하 회의를 다녀와서

글 · 이 윤 기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대리

**제2차** 세계석유회의(World Petroleum Congress) 아시아 지역회의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다. WPC 한국위원회는 지난 1997년 1월, WPC 본부에 가입한 이래 꾸준히 본부총회와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가하여 국내의 석유산업을 홍보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무대에 한국의 석유산업을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도 한국석유공사 정용현 부사장 과 신석우 팀장 등 3명이 참가하였다.

### 카타르는

최근 들어 WPC 총회와 아시아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들이 신흥석유국가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역회의를 개최한 카타르도 1971년 영국의 통치에서 독립한 중동의 신흥석유부국이다. 카타르는 우

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면적에 총 인구가 60만명(카타르 본국인은 약 16만명)에 불과한 페르시아만의 작은 반도국이나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확인 매장량 약 900조 입방피트)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300년 정도의 채굴 기간이 보장되는 막대한 양으로 가스의 수요증가와 함께 향후 중동지역에서 카타르의 중요성은 한 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를 비롯한 SK, 삼성물산, 현대중합상사, LG상사, 대성산업, 한화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천연가스 매장지인 카타르 North Field, Ras Laffan 육상광구의 지분 5%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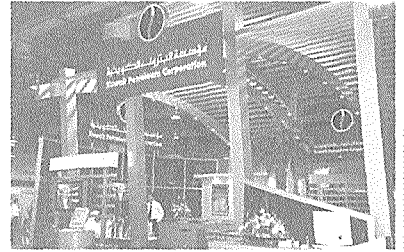
### 회의장이모저모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약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는 카타르의 주요 인사 외에도 이란, 이집트, 오만의 석유 및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OPEC 임원진, ConocoPhilips, ChevronTexaco, ExxonMobil 등과 같은 메이저사의 CEO와 중동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쿠웨이트석유(KPC)의 사장 등이 참가하였다. 특히, ConocoPhilips 같은 경우 카타르석유와 Ras Laffan 광구의 GTL 플랜트 설치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지역회의의 프로그램은 WPC 임원 및 회원국 회의, 분야별 논문발표회, 석유산업전시회와 각종 행사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논문발표회는 1.Globalization and the Petroleum Industry, 2.World Oil Supply Demand, 3.Environmental Issues & Sustainable Development, 4.Managing Risk & Uncertainty in the Petroleum Industry 등 6개 Session별로 6~7편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개막식 연사로 참석한 카타르 부총리겸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WPC 가입 3년만에 아시아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짧은 기간에 중동의 주요 석유수출국 위치에 오르게 된 카타르 석유산업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덧붙였다.

이어 기조강연자로 나선 Saudi Aramco의 수석부사장 Dr. Abd Allah Saif Al-Saif 는 2020년까지 세계 경제가 매년 평균 약 3.1% 성장할 경우 석유수요는 이중 약 절반 정도인 1.5%씩 성장한 107MMMBD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기타에너지 부문이나 산업 부문은 1~3MMMBD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수송용연료 부문에서는 약 20MMMBD의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였다. 또한 Non-OPEC지역의 심부화나 극지화로 개발비용이 상승하고 거대 유전의 발견율이 현저히 떨어져 지난 197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던 OPEC



의 Market Share가 2000년을 정점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OPEC과 Non-OPEC간의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Oil and Gas Demand 2020을 주제로 발표한 미국 ChevronTexaco 수석연구원 Dr. Edgard H. Habib 역시 향후 20년간에 걸친 석유수요 증가분의 대부분을 개도국지역의 교통연료수요의 증가에 두었으며 가스는 환경요인이나 비용효과를 감안한 전력생산이나 산업동력으로서의 연료로 빠르게 성장할 에너지원으로 예상하였다.

### 카타르 지역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지역회의에서도 두드러졌던 점은 중국의 적극적인 활동이었다. WPC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였으며 세계석유산업이 탐사·개발 등의 상류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주요 석유소비지이면서도 그 동안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97년 WPC 총회를 개최한 이래, 아시아 지역의 석유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회의 개최를 발의하여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를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Youth Form의 개최를 제안하여 2004년 9월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CNPC 사장인 Wang Tao, WPC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CNPC, SINOPEC, CNOOC, CINOCEM 등 4개사에서 50여명의 참가단을 구성하여 논문발표회와 전시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국의 활동을 보며 세계석유업계에서 우리나라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되새겨 본다. ☘